

**동양**

**윤리**

**사상**

# 공자·맹자·순자

## 공자

	정명 사상	공통	
01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18-06-04)		
02	사회 구성원 각자의 직책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하는가? (20특)	유가	
03	좋은 정치의 출발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되는 것이다. <sup>1)</sup> (19완)	플라톤	
04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알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19완)		
05	좋은 정치의 출발은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sup>2)</sup> (19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제(孝悌)·충서(忠恕)	공통	
	사람들이 충서(忠恕)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17-06-04)	맹자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17-06-20)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17-11-01)		
	효(孝)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15-11-04)	맹자	
	효제(孝悌)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본다. (14-11-06)		
	가족에 대한 사랑을 타인에게로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14-11-07)	유가	
	도를 깨닫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19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된 인격 수양은 사후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19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18수완 | 바람직한 국가가 실현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 공자·플라톤

2) 공자는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았다.

	인(仁)	공통	
1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18-11-03)	노자	
2	인은 예를 실천함으로써 획득되는 정신이다. (20수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인(仁)이란 남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19완)		
4	인(仁)이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이며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사랑이다. (19완)		
5	내면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완)		

	예(禮)	공통	
1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19-09-06)		
2	예(禮)는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 준거이다. (14-06-05)		
3	예는 인과 달리 실천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 <sup>3)</sup> (20특)		
4	하늘이 준 덕을 잃은 사람이 행하는 예는 참된 예가 아니다. (20특)		
5	예에 의한 교화는 개인의 인격 함양과 사회 안정의 요건이다. (20특)	유가	
6	예를 통해 인의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sup>4)</sup> (19완)		
7	형식화된 예는 진정한 예가 아니다. (18완)		

	도덕 규범	공통	
1	도덕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19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모든 행위가 법률에 맞도록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19완)	유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수양을 통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덕규범에 합치하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18완)		
4	이기심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규범을 따른다. <sup>5)</sup> (18완)		

3) 인의 실천 근거는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4)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5)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보편적인 규범인 예를 따라야 한다.

대동사회	공통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한다. (19-09-06)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18-11-03)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18-11-03)		
군주의 자격을 도덕적 양심에서 찾고자 하는가? (15-06-15)		
천명을 받은 성인(聖人)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15-06-15)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 덕(德)에 의한 통치를 행해야 한다. (14-09-05)	맹자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도덕 공동체를 추구한다. (20수특)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려면 경(敬)으로써 자신을 닦아야 한다. (19수특)		
재화의 적음을 걱정하기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걱정해야 한다. 6) (20수완)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면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19수완)		
통치자가 덕을 갖추면 백성들이 다스려진다. (18수완)	노자	

형벌	공통	
1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19-09-06)		
2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16-06-04)		
3 예법과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완성)		

6) 19수완 |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공유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자·플라톤  
18수완 |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재화가 많아도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가?

# 맹자

	차등에	공통	
1	가정에서의 사랑과 사회관계의 사랑의 근원은 같다. (18완성)		
2	나의 집과 남의 집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인가? (18완성)		
3	사랑은 부모, 이웃, 국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8완성)		
4	사회 혼란의 원인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18완성)		

	사단(四端)	공통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19-06-01)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인 마음[四端]을 확충하여야 하는가? (19-11-18)	유교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시비지심)이 선천적으로 있다고 본다. (18-06-06-변형)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15-11-03)		
	본성에 내재한 선(善)의 실마리를 잘 보존하고 확장해야 한다. (13-06-16)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독특한 면은 사단과 사덕에서 찾아야 한다. (19수특)		
	인성에 내재하는 도덕적 단서는 하늘에 뿌리를 둔 것인가? (19수완)		
	타고난 도덕적 감정[四端]을 확충하여 인격을 완성시켜야 하는가? (19수완)		

	인의예지(仁義禮智)	공통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19-09-06)	순자	
	인의(仁義)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량한 덕성이다. (17-06-06)		
	인의(仁義)에 바탕을 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17-11-11)		
	예(禮)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14-11-15)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덕(德)이 실현된다고 보는가? (14-11-15)		
	사덕은 통치의 근간인 법 시행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수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智)’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덕이다. (18수특)		
	‘예(禮)’는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실현되는 덕의 하나이다. (18수특)		

	욕구	공통	
1	욕구를 절제하고 예의를 밝혀 사회적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18-09-04)	순자	
2	생존 욕구와 인의예지 모두 선천적인 것이다. (19수특)	순자	
3	선한 존재가 되려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19수특)		

	집의(集義) · 호연지기(浩然之氣)	공통	
1	호연지기는 의로운 행동을 반복해 얻은 지극히 크고 올곧은 도덕적 기개이다. (17-06-06)		
2	본래 마음 안에 있는 의를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16-11-04-변형)		
3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 (14-06-07)		
4	대장부는 생계와 관련된 모든 일을 직접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7) (20수특)		
5	대인은 마음을 통해 육체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20완)		
6	대인의 육체적 욕구와 인의예지는 모두 타고나는 것이다. 8) (20완)		
7	대장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의를 취하고자 한다. (19완)		

7) 맹자는 대인과 소인, 마음을 쓰는 일과 몸을 쓰는 일을 구분한다.

8) 대인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잘 보존한 사람이다.

본성론 : 성선설(性善說)	공통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위해 신독(愼獨)을 실천해야 한다. (18-06-04)	유교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본다. (18-06-06-변형)	순자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8-06-06)	순자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인의의 도덕을 실현해야 한다. (18-09-04)		
선천적 내면의 본성을 확충하여 예치를 구현해야 한다. (18-09-04)		
인성(人性)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량(善良)한 덕성이다. (17-06-06)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을 저버리므로 자포자기한다고 본다. (17-09-02)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17-09-02)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6-06-12)	장자	
본성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16-06-12)	장자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본성을 확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6-09-04)		
본성에 따를 때 도덕적 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16-09-04)		
성인과 일반 백성은 모두 동일한 본성[性]을 갖고 태어난다. (16-11-04)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능(良能)을 지닌다고 주장하는가? (15-11-04)		
사람은 누구나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15-06-06)	주, 양	
사단(四端)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로 보아야 한다. (14-09-05)		
너에게 내재한 덕성을 드러내어 정직하게 행동하렴. (13-09-17)		
선천적인 도덕성을 확충하여 인(仁)의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13-11-08)	순자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가? (13-11-08)	노자	
양지와 양능은 모든 만물에 부여되어 있는가? (20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지와 양능은 발휘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마는 것인가? 9) (20특)	주, 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20완)		
사람은 선한 본성과 함께 개인의 이기적 욕심이나 의로운 일을 주저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선(不善)을 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0완)		
예의 실천 여부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고 본다. (19완)		
인간은 도덕성과 생존 욕구를 함께 가지고 태어남을 모르고 있다. (19완)	순자	

9)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다.

통치론 : 민본주의	공통
군주가 제정하고 확립한 외면적 사회 규범[禮法]을 따라야 하는가? (19-11-18)	
정치적으로는 왕도를 추구하고 패도(霸道)를 부정해야 하는가? (19-11-18)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추방될 수 있다고 본다. (18-11-11)	
민심을 잃은 부덕한 통치자를 교체하는 혁명을 인정한다. (17-11-11)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포악한 군주를 교체해야 하는가? (16-06-04)	
정명(正名)에 입각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는가? (15-11-04)	
인의를 해치는 군주의 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14-09-05)	
모든 일을 예외 없이 공정하게 법으로 처리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20특)	
백성의 이로움을 버리고 자신의 옳음을 추구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19특)	
패도 정치는 힘에 의존하는 정치이다. (18완)	
민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18완)	
백성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덕(正德)의 실현이다. (18완)	

무항산 무항심	공통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9-09-06)	
백성은 먼저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18-11-09)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산(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16-06-12)	
일정한 생업[恒産] 보장을 왕도(王道)의 시작으로 보는가? (15-11-04)	
백성의 경제 생활 안정이 도덕 정치의 기반인가? (20특)	
통치자의 목적은 백성의 생업 보장에 한정되는가? (20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백성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20특)	
통치자는 백성의 생업(生業)을 관장할 때 반드시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18완)	
백성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의(義)는 아니다. (18완)	

10) 덕치를 강조하였다.

11) 대장부는 옳음을 추구하면서도 백성의 생업(이로움)을 중요하게 여긴다.